

## ['고난의 역사현장'일제전적지를 가다](56)

제2부:베일벗는 일본군 실체-43 일제군사시설과 4-3 (2)60여년 만 유해발굴  
4.3당시 학살실체 서서히 윤곽

입력 : 2007. 02.22. 00:00:00



▲4-3당시 희생당한 유해가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별도봉 일본군 갱도에서 발굴단이 유해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이승철기자 sclee@hallailbo.co.kr

### 무고한 주민·군인 등 집단 암매장...해방공간의 아픈 제주역사 함축

제주섬 1백여 곳 이상의 오름은 별집투성이다. 수많은 갱도가 오름 내부를 파헤쳐놓고 있다. 태평양전쟁 말기에 일제가 구축한 갱도진지 등은 일본 제국주의가 천황제 유지와 일(日)본토 사수를 위한 것이다. 그 과정에 수많은 제주도민들과 육지부의 탄광노동자들까지 강제징용돼 고통스런 노역에 시달렸다. 그 아픈 역사의 산물인 갱도진지가 1948년 발생한 4-3사건 당시에는 무고한 주민들의 학살암매장터로 이용된다.

대표적인 예가 제주시 화북동 소재 별도봉의 일본군 갱도진지다.

4·3 당시 학살암매장 터는 별도봉 산책로 하단부의 갱도 가운데 서쪽으로부터 세 번째에 해당된다. 현재 이곳은 입구가 함몰돼 막혀있다. 아마도 내부는 텅빈 공간을 이루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 하단부에는 길이가 10m~15m 안팎의 갱도 7곳이 구축돼 있다. 직선형으로 구축된 갱도의 폭은 3m, 높이는 260cm 내외에 이른다.

주민들의 증언 등을 통해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별도봉 일본군 갱도에서는 60명 안팎이 처형된 것으로 추정된다. 희생자들은 무고한 주민들 뿐 아니라 당시 진압부대로 제주에 주둔한 국군 9연대의 일부 병력도 포함돼 있다. 군인들이 숙청당한 것은 제주도민을 상대로 한 무차별 진압작전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9연대 병력 중에는 제주출신 군인들이 있었다. 이들은 도민들을 상대로 한 무차별 진압작전이 달가울리 없었다. 때문에 이들은 진압작전에 불만을 품게 되고, 이곳에서는 이러한 제주출신 군인들에 대한 숙청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른바 '9연대 숙청사건'이다. 그 시기는 대략 1948년 10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로 알려진다. 숙청된 군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죽음의 문턱에서도 기적처럼 살아남은 생존자가 있다. 그 생존자는 당시를 떠올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60여년 세월이 흘렀다 하더라도 죽음보다 더 한 고통스런 기억을 쉽게 풀어놓을 수는 없으리라.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에 따르면 이 곳 일본군 갱도에서 숙청당한 군인들은 모두 발가벗겨진 채 일본군 군복으로 갈아입혀졌다고 한다. 그 이유는 한국군 복장을 했을 경우 군인들에 의해 숙청당한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한 나머지 신원을 감추기 위해서 였다.

별도봉에서 왜 민간인과 군인들이 처형된 채 암매장됐을까.



4·3 당시 정황을 보면 제주시 동쪽은 별도봉과 사라봉이, 서쪽은 정뜨르비행장(현 제주국제공항)이 학살터로 이용됐다. 그래서 별도봉 ? 사라봉에서는 처형당한 서쪽 주민들이, 정뜨르비행장에서는 동쪽 주민들이 주로 암매장됐다. 지난해 6월 별도봉 화북천 인근에서 발굴에 들어가 확인한 유해 3구도 당시 도두리 일대 주민들이다. 정뜨르비행장 인근에는 약 1천여구에 이르는 시체가 암매장됐다고 한다.

▲유해 발굴현장 인근 일본군 갱도내부가 창고로 이용되고 있다.

별도봉·사라봉이 학살암매장터로 이용된 이유는 사람들의 접근이 어려운 반면에 사체를 처리하기에는 적당한 장소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별도봉과 사라봉 인근은 당시 시체로 넘쳐났다고 한다.

특히 별도봉이 자리한 화북 인근에서는 1948년 10월부터 1949년 1~2월 사이에 많은 주민들이 암매장됐다.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호에 의하면 1949년 2월 27일 군법회의 사형확정자 39명에 대한 사형집행장소도 화북인근으로 돼 있다. 별도봉 자락의 곤을동(坤乙洞)에서는 1949년 1월4일 군인들에 의해 마을 전체가 불에 타면서 24명이 희생됐다.

별도봉의 일본군 갱도는 이처럼 일제강점기와 4·3으로 이어지는 해방공간의 제주 역사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다. 이에 따라 아픈 제주 역사를 재조명하고 이를 역사교훈의 장으로 삼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별취재팀=이윤형·표성준·이승철기자

### **[탐사포커스]암매장 유해 950여구 발굴계획**

별도봉 갱도진지처럼 4·3 당시 주민들은 영문도 모른채 죽임을 당해 암매장된다.

암매장된 유해는 60여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방치돼 왔다.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해 암매장됐는지 그 수는 파악조차 안되고 있다. 4·3유해발굴을 통해 암매장된 희생자 수를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유해발굴은 오는 2009년까지 계속된다. 4·3발생 후 60여년 만에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제주대학교와 제주4·3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공동발굴단은 이 기간 동안 9백50여구의 유해를 발굴할 계획이다.

지난해 5월 제주시 화북동 화북천변 암매장지에 대한 발굴을 시작으로 화북동 가릿당동산에 대한 발굴을 완료한 상태다.

유해발굴대상지는 제주시 화북동 지역의 고우니모루 저수지, 동제원입구, 화북천 인근 밭 등 5개소 및 제주국제공항 2개소 등 모두 11곳으로 국비 43억원이 투입된다.

유해발굴사업은 관련기관간 공동네트워크로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제주대학교와 (사)제주4·3연구소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연구진과 자문위원단을 조직하고, 제주대학교 예방의학교실과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대학원 등 관련기관의 전문인력이 투입된다.

도는 유해를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인 신원확인 방법을 통해 유가족으로 찾아 유족들의 품으로 돌려줄 예정이다.

이번 유해발굴사업은 60여년 전 공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희생자들의 인권회복이자 진상규명 작업인 동시에 과거 아픈역사 청산을 통한 역사바로세우기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윤형기자 yhlee@hallailbo.co.kr

※한라일보(www.hall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 문의 특별취재팀 064-750-2231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